



# 광남일보



주간 제 8118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음력 5월 18일)

## 민형배 “압도적 성장으로 전남광주 새 시대 열겠다”

### 초대 통합특별시장 취임...5대 시정 운영 청사진 제시 AI·반도체·에너지 융합 첨단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김대중 교육감·27개 시구군 기초단체장도 업무 돌입

대한민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시)가 1일 공식 막을 올렸다. ▶관련기사 2·3·6·19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체계 수립에 나서는 등 대한민국 서남권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시장은 이날 오전 0시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기존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취임 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민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압도적 성장과 균형발전,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핵심으로 한 시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며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힘을 갖춰 시민의 삶과 지역의 내일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전남과 광주는 오랫동안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소외를 겪었고, 1986년 행정구역 분리 이후에는 불필요한 경쟁

과 갈등으로 힘을 소모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행정통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전남과 광주는 대한민국 산업과 성장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중심에 서게 됐다”며 “전남의 바다와 섬, 재생에너지, 농생명 산업과 광주의 인공지능(AI), 첨단산업, 교육·문화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성장 전략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추진 중인 800조원 규모의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광주의 인공지능(AI)·제조기술과 전남의 산업용 자·재생에너지 기반을 연계해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전담 추진 조직을 즉시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식 및 반도체 투자환경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겠다”며 광주권의 AI·문화, 동부권의 소재·향만산업, 서부권의 해상풍력·에너지, 중남권의 농생명·바이오 산업을 연계하는 권역별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 운용에서도 균형발전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서남권 해상풍력과 태양광, RE100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한 녹색도시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정책 제안과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 행정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과 동시에 제1호 조례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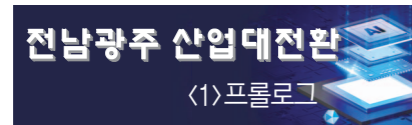
조례’를 제정하며 미래산업 육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조례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과 투자유치,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는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 근거가 담겼다. 위원회는 반도체 산업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컨트론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하면서 통합특별시가 국가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 구축에 본격 나선 것이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수백조원 반도체 투자...성패는 인프라·지원책이 관건



### 탈수도권 생산·AI·R&D 결합한 산업 생태계 구축 도시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정주환경’ 조성 핵심

전남광주지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구상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정부가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엔코 등 주요

기업과 투자 이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총 896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기반시설과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수백조원 규모로 제시된 이번 투자에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연구개발(R&D) 기능이 함께 포함되며, 설계·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아우르는 대형 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또 정부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리며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기업 유입이 확대되며 지역 산업 기반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산업이 고

급 인재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핵심 경쟁력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인재 확보와 정착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산업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는 공장이나 투자 규모가 아니라 핵심 인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육·의료·주거·문화 등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과 인재의 장기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패는 투자 규모보다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얼마나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4면으로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1호 법안은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호 법안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전략 거점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관련기사 2·8면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송형곤 초대 의장(고흥1·4선)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공식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략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특별시 출범 직후 첫 조례로 반도체 투자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 방침과 맞물려 특별시의 산업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특별시장의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와 투자이행 지원 책무 규정,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 전문적 검토와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실무 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투자기업 요청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 구축, 투자기업의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의무 등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신하 기자 goback@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민선9기, 지방시대의 새 장을 엽니다.

16개 시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전남광주특별시장 민형배 시장	 부산광역시 전재수 시장	 대구광역시 추경호 시장	 인천광역시 박찬대 시장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	 울산광역시 김상욱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상호 시장
 경기도 추미애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우상호 도지사	 충청북도 신용한 도지사	 충청남도 박수현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도지사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도지사